기술 2025-263 2025.11.27.

기술분석보고서 IT

소프트캠프(258790)

작성기관 NICE평가정보(주) 작 성 자 최성욱 연구원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담당자(TEL.02-2124-68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캠프(258790)

차세대 보안 패러다임으로 성공적인 피봇을 실행하고 있는 기술 전문 기업

기업정보(2025.11.24 기준)

대표자	배환국
설립일자	1999.07.15
상장일자	2017.04.27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IT
주요제품	소프트웨어(문서보안, 키보드보안, 도면보안, PC보안) 개발, 공급

시세정보(2025.11.24 기준)

현재가(원)	1,209
액면가(원)	100
시가총액(억 원)	302
발행주식수	24,991,284
52주 최고가(원)	2,050
52주 최저가(원)	826
외국인지분율(%)	2.80
주요주주	배환국, 소프트캠프(주), 우리사주조합, 유제영

■ 제로트러스트 선도 기업으로의 진화

㈜소프트캠프(이하 동사)는 설립 이후 국내 문서보안(DRM) 시장에서 축적한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최근 차세대 보안 패러다임인 '제로트러스트(Zero Trust)' 보안 시장으로 성공적인 피벗을 실행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온프레미스 기반 보안 솔루션 기업이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워크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형 보안 기업으로 진화하는 전략적 과정을 보여준다. 회사는 'Document Centric Security'라는 기존 캐시카우 사업과 'Zero Trust Security'라는 신규 성장 동력 사업 간 균형을 맞추며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 DRM 원천 기술 및 차세대 RBI/CDR 기술 내재화

동사 경쟁력의 근간은 SecureOS, 즉 운영체제 커널(Kernel) 레벨에서 데이터의 입출력 및 흐름을 직접 제어하는 원천 기술력에 있다. 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문서 암호화(DRM) 및 가상 보안 영역(S-Work)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해 왔다. 최근에는 이 핵심 기술을 응용하여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핵심 구성요소인 '원격 브라우저 격리(RBI, Remote Browser Isolation)' 및 '콘텐츠 무해화(CDR, Content Disarm & Reconstruction)' 기술을 성공적으로 내재화했다.

■ 클라우드 구독형 서비스(SECaaS) 본격화 및 일본 시장 공략

동사는 미래 성장은 'Security 365' 브랜드로 대표되는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서비스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기존의 영구 라이선스 판매 방식에서 월간/연간 구독방식의 SaaS 모델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본 시장에서의 망분리 규제 완화(LBO, Local Break Out) 정책은 동사의 SHIELD Gate와 같은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에 중대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2	190	-7.5	13	7.1	6	3.4	5.40	1.97	94.1	35	697	46.34	2.40
2023	185	-2.8	-26	-13.9	-60	-32.2	-41.44	-20.94	111.2	-233	474	N/A	3.06
2024	169	-8.6	-18	-10.8	0	0.2	1.96	0.10	237.5	9	485	107.97	2.00

소프트캠프(258790)

기업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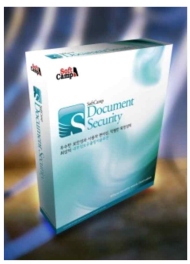
문서보안과 OS 보안 분야 독보적인 기술력	OS 커널 레벨의 엔드포인트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는 SecureOS 원천 기술에 기반한 문서 암호화(DRM) 기술 보유, 망분리 환경 및 원격근무 환경에서 외부 위협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원격 브라우저 격리(RBI) 기술과 콘텐츠 무해화(CDR) 기술 내재화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통해 경쟁력 강화	매출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안정적인 캐시카우인 '문서 중심 보안' (DRM, 영역보안) 사업과 고성장 신사업인 '제로 트러스트 보안' (RBI, CDR, ZTNA) 및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SECaaS) 등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구축

핵심 기술 및 적용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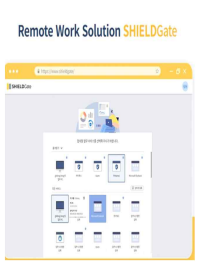
문서 중심 보안 기술 Document Security SHIELD DRM	파일 자체를 암호화하고 사용자별/그룹별 접근 권한(읽기, 쓰기, 인쇄, 캡처 등)을 세밀하게 제어하는 DRM 기술 및 가상의 보안 영역을 생성하는 영역 DRM 기술, 최근 Microsoft 365 등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DRM 암호화 상태를 유지 가능.
제로트러스트 보안 SHIELD Gate	웹 브라우징 세션을 사용자 PC가 아닌 격리된 가상 서버에서 실행하고 그 결과 화면만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원격 브라우저 격리(RBI)' 기술 사용, 대표 제품인 SHIELD Gate는 '신뢰하지 않고, 항상 검증한다'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 구현.
콘텐츠 무해화(CDR) SHIELDEX	외부에서 유입되는 파일(문서, 이미지 등)에서 악성코드가 숨을 수 있는 액티브 콘텐츠(매크로, 스크립트 등)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안전한 요소(텍스트, 레이아웃 등)로만 파일을 재조합하는 CDR 기술로, 이는 Zero-day Attack 방어에 필수

데이터 보호와 위협 차단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

운영체제 커널레벨 문서 중심 보안 기술 기반으로 제로트러스트 보안과 콘텐츠 무해화 기술 보유



Document Security
문서보안 기술



제로트러스트 인증
SHIEDGate

컨텐츠 무해화
SHIELDEX

시장경쟁력

원천기술 기반의 높은 기술진입장벽	OS 커널을 직접 제어하는 SecureOS 원천 기술력 보유, 이는 단순 응용 프로그램 개발과는 차원이 다른 고도의 시스템 프로그래밍 역량을 요구하며, 신규 업체가 단기간에 모방하거나 따라잡기 어려운 강력한 기술적 해자 구축
주요 그룹사 및 금융권 중심의 강력한 고객 안정성	국내 주요 대기업 그룹사(현대자동차 그룹, SK, 한화, 신세계 등) 및 금융지주사(KB국민, KEB하나, 신한 등)를 핵심 고객으로 확보, 대형 고객은 보안 요구 수준이 매우 높고 시스템 복잡도가 커, 쉽게 교체하지 않는 강력한 '공급자 고착화(Lock-in effect)' 특성
차세대 보안(제로트러스트) 시장의 전략적 선점	정부의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 발표 및 공공기관의 망분리 규제 완화 움직임, 그리고 일본의 'LBO(Local Break Out)' 정책 등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도입을 가속화하는 강력한 정책적 기회 요인으로 작용, SHIELD Gate (RBI/ZTNA)와 SHIELD ID (IAM) 등 제로 트러스트 구현의 핵심 솔루션들로 초기 시장 개화 최대 수혜 포지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바탕으로 녹색 기술 개발과 친환경 경영 ◎ 온실가스 감축과 전사적인 자원 절감 노력을 통해 IT기업으로서의 탄소중립 기여 도모 ◎ 클라우드 전환을 통한 서버 에너지 효율화, 페이퍼리스 업무환경 조성
S 사회책임경영	◎ 2018년 대한상공회의소 워라벨 우수 중소기업 선정,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과 인재 양성 세미나 개최 등으로 산업생태계와 지역사회 공헌 ◎ 고객사와의 상생 세미나 개최를 통해 사회적 가치 향상, 사이버보안 의식 확산 노력
G 기업지배구조	◎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 제도를 통해 견제와 균형 노력 ◎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으로 주주 및 이해관계자 가치보호에 힘쓰며 주주환원과 회사 발전 조화 추구 ◎ 투명성, 책임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지배구조 확립에 노력

I. 기업 현황

문서보안 솔루션 기술 기반 제로트러스트 및 클라우드 보안서비스로 사업 영역 확장 중

동사는 문서보안(DRM) 솔루션을 기반으로 성장한 1세대 정보보안 전문기업이며,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에 대응하는 제로트러스트 및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 기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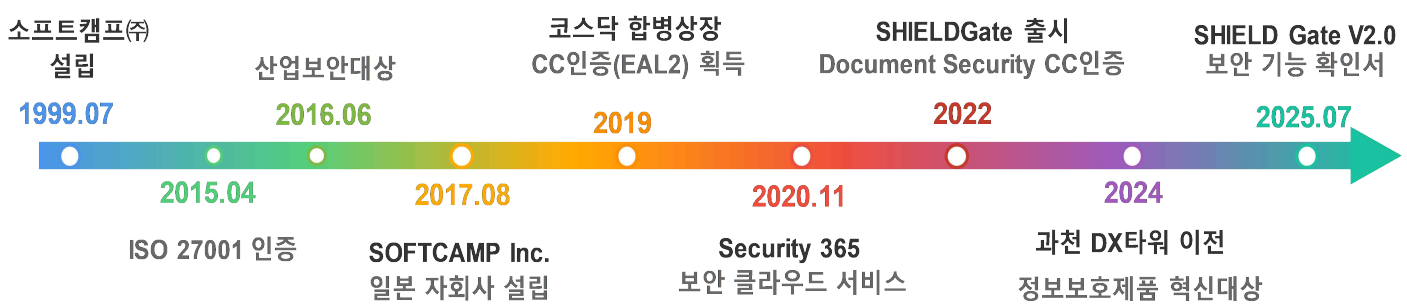
동사는 전자문서 보안과 정보유출 방지, 네트워크 격리 분야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이다. 문서암호화(DRM) 기술을 기반으로 문서보안·영역보안·제로트러스트·클라우드 보안 서비스(Security 365 등)를 국내 기업·금융·공공기관 및 일본 자회사 SOFTCAMP Japan을 통한 해외 시장에 제공하며, AI 시대를 대비한 데이터 중심 보안 솔루션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 주요 연혁 및 대표이사 주요 이력

동사는 1999년 7월 15일 설립된 정보보안 전문기업으로 사명은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소프트캠프'를 사용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베이스캠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설립 이후 일관되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보안 솔루션 서비스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유지해 왔으며 전자문서 보안, 정보유출 방지, 네트워크 격리 등 데이터 중심의 보안 영역을 핵심 사업으로 삼고 다수의 제품 라인업을 통해 기업·금융권·공공기관에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문서 DRM 분야에서 국내 최선두 업체 중 하나로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한 높은 브랜드 신뢰도를 구축하고 있다. 2006년에는 자체 개발한 보안 솔루션의 해외 수출 성과로 '1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았으며 2009년에는 산업기술 보호와 정보보안 분야 공로를 인정받아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2013년에는 외부 유입 파일의 악성코드 위협을 제거하는 콘텐츠 무해화 솔루션 'SHIELDEX'를 출시하며 문서·파일 보안 영역을 확장했다.

2019년 12월에는 KB제11호 스팩과의 합병을 통해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했다. 2020년에는 원격근무 환경을 겨냥한 보안 솔루션 'SHIELD@Home'을 출시하고, 동시에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 통합 브랜드 'Security 365'를 발표하여 클라우드·서비스형 보안 사업을 강화했다. 2022년에는 주력 제품인 Document Security V6.0이 국제 공통평가기준(CC)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수준의 보안성을 공식 인정받았다. 2024년에는 제로트러스트 기반 원격 브라우저 격리 솔루션인 SHIELDEX Remote Browser가 정보보호제품 혁신대상을 수상했고, 본사를 과천 DX타워 신사옥으로 이전하면서 성장 단계에 걸맞은 인프라를 갖추었다.

그림 1. 주요 연혁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5.09.),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동사의 배환국 대표이사는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엔지니어 출신 경영자이다. 미래산업 연구원, 라이코스코리아 개발팀장을 거쳐 1999년 동사 창업에 합류했으며, 2000년부터 연구소장을 역임하다 2004년 6월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제로트러스트위원회(KOZETA)' 의장직을 겸임하며 국내 제로 트러스트 시장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 종속회사 및 주주현황

동사는 현재 총 3개의 비상장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핵심 종속회사는 일본 시장 공략의 거점인 'SOFTCAMP Japan'(지분율 90.00%, 일본)으로, 2020년 9월 SHIELDEX 법인을 흡수 합병했다. 또한, SW 공급망 보안 사업을 위해 2021년 (주)엔키화이트햇과 합작 설립한 '레드펜소프트(주)'(지분율 55.61%, 한국)를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 'DNA투자조합' (지분율 93.18%, 한국)을 통한 투자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표 1. 주요 종속회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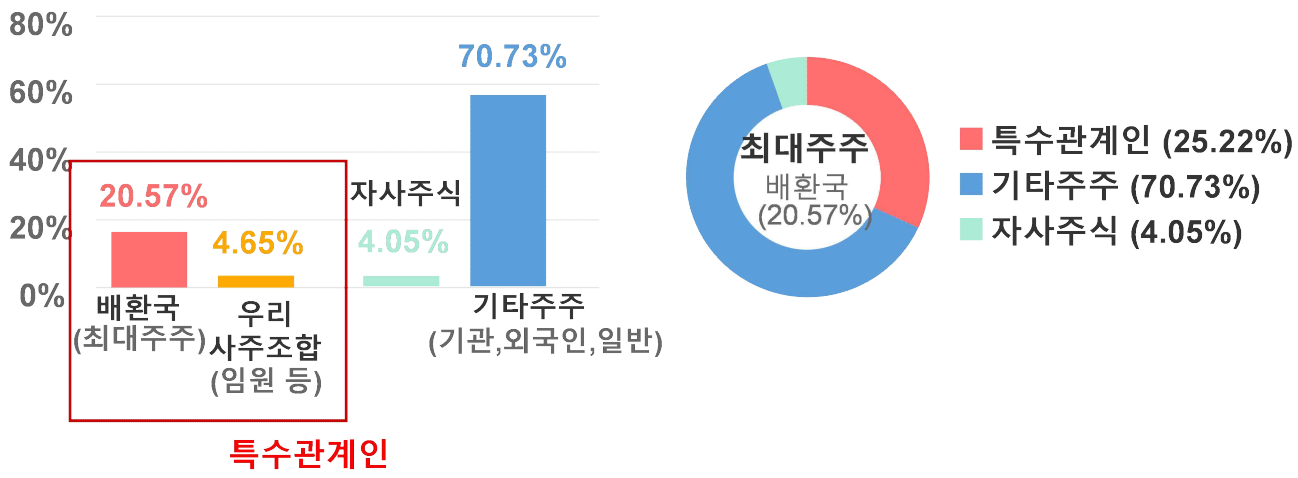
회사명	주요 사업	지분율 (%)	총자산 (천원)*	비고
SOFTCAMP Japan	일본사업, SW 개발	90.00	147,913	
레드펜소프트(주)	SW 공급망 보안	55.61	1,185,870	
DNA투자조합	투자조합	93.18	32,498	

* 2025년 3분기 기준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5.09.),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2025년 9월 30일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배환국 대표이사로, 본인 지분 20.57%(5,141,402주)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임원 등)의 총 지분율은 25.22%(6,304,351주)이다. 회사는 주가 안정 및 스팩 합병 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대응 등을 목적으로 자사주식 1,012,632주(지분율 4.05%)를 보유하고 있다. 기관 및 외국인 지분은 현재 5% 미만 수준으로 경영권은 안정적이며 유통주식 비율은 약 70.73%로 활발한 시장 유동성을 보인다.

그림 2. 주주현황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5.09.),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사업 분야 및 매출현황

동사의 사업분야는 “문서보안(DRM) 솔루션”과 “기타 시스템 보안(보안관리)” 부문으로 크게 구분된다. 전자는 엔드포인트 문서중심 보안 사업으로, 주력 제품인 Document Security(문서암호화), S-Work(망분리/영역DRM), SHIELD DRM/SHIELD Drive(클라우드 및 저장소 보안), Secure Mark(화면 워터마크) 등이 해당된다. 이 부문 솔루션들은 기업 내부의 중요 문서를 생성부터 저장, 유통까지 암호화하고 권한 통제로 보호함으로써 내부정보유출 방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번째로 기타 시스템 보안(보안관리) 사업은 제로트러스트 기반 신뢰 불가능 접속 차단 및 안전한 원격협업을 위한 제품군으로, SHIELD Gate(VPN 대체), SHIELDEX Remote Browser(원격 웹격리), SHIELDEX File/Mail(CDR 파일무해화) 등이 속한다. 이들 솔루션은 클라우드 및 재택근무 환경에서 외부 위협 차단과 안전한 접속을 보장하여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 구현을 돕는다. 동사의 핵심 고객층은 금융권, 대기업 등 보안 수요가 높은 국내 기업들이며, 프로젝트 단위 라이선스 판매와 유지보수 수익이 주요 매출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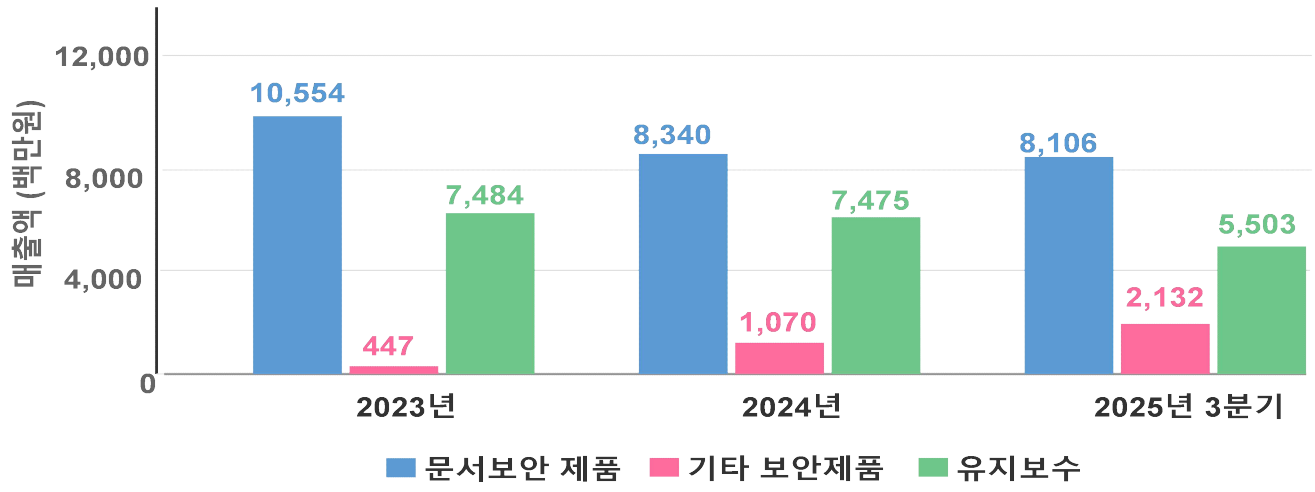
2025년 3분기 단일 분기 매출액은 약 66.4억 원, 누적 매출액은 약 157.4억 원으로 전년 동기(약 109.2억 원) 대비 약 40% 이상 증가하면서 2024년 연간 매출 168.9억 원의 90% 이상을 이미 회복한 상태이다. 2023년 연결 기준 연간 매출액은 약 184.9억 원 수준이었고, 2024년에는 일부 프로젝트 공백으로 매출이 약 168.9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원가구조 개선과 비용 절감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크게 개선되었다. 제품별로는 문서 DRM 솔루션 업그레이드와 유지보수 계약이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형성하고, SHIELDEX와 SHIELD Gate 등 제로트러스트 제품군의 매출 증가와 정부 과제 수주가 더해지면서 주력 사업의 안정성과 신사업의 성장성을 함께 확보해 향후 매출 규모 확대와 수익성 개선 여지가 큰 상황이다.

표 2. 주요 사업 분야별 매출 현황

매출 유형	상세 품목 내용	매출액 (백만원)	매출 비중(%)
문서보안(DRM)제품	• DS, S-Work, SHIELD DRM/SHIELD Drive, Secure Mark 등	8,106	51.5
기타 보안제품	•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쳐 기반 보안 관리, SHIELD Gate, SHIELDEX	2,132	13.5
유지보수	• 기존 고객사 유지 보수 및 System Management	5,503	35.0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5.09.),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그림 3. 사업부문별 매출액 구조 (단위: 백만 원)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5.09.),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Ⅱ.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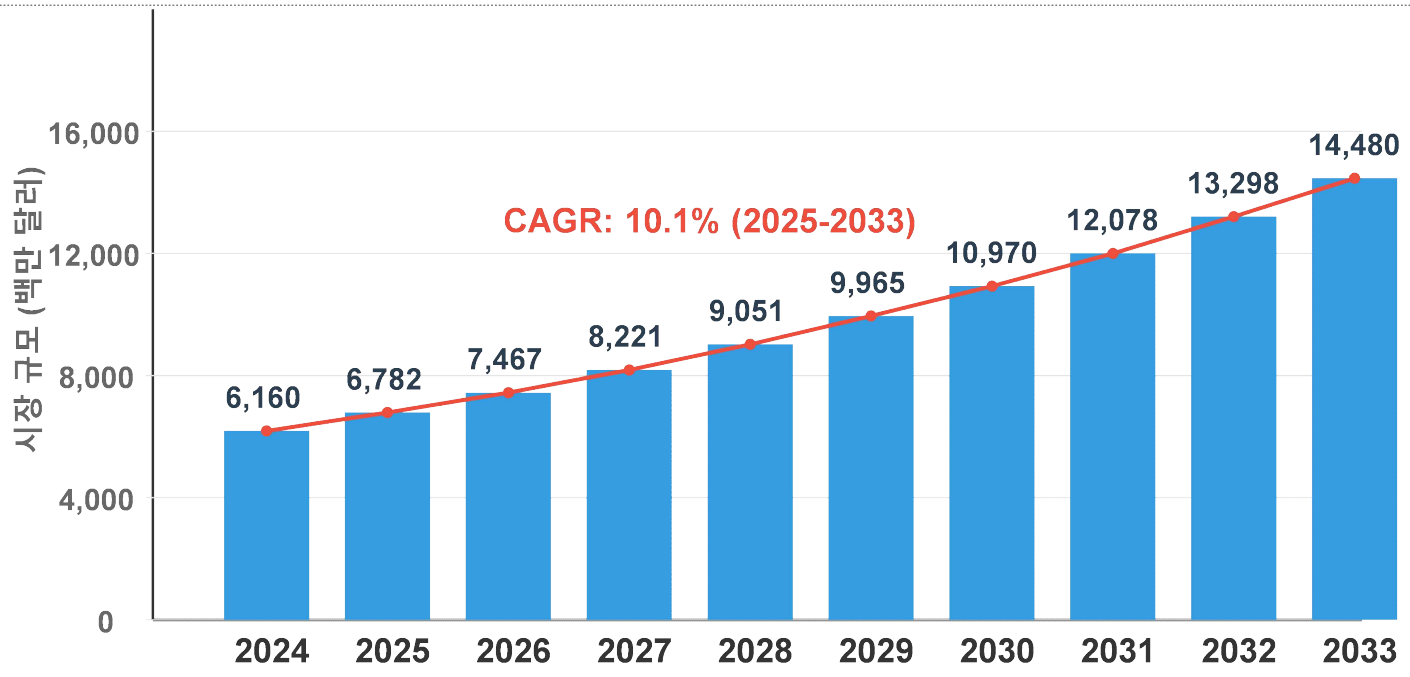
클라우드와 SW 공급망 보안 등 문서-사용자-접속 전반에 대한 통합 보안시장 리더 지향

동사의 목표 시장은 기업 정보보안 솔루션 시장 중에서도 DRM/문서 보안 및 제로트러스트 보안 영역이다. 즉, 엔터프라이즈 DRM 등 제로트러스트 관련 시장을 핵심 타겟으로 한다. 이 시장은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가속과 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힘입어 국내외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 국내외 DRM/문서보안 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전망

글로벌 DRM/문서보안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10~15% 수준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전 세계 문서보안(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전체 시장은 2024년 약 61.6억 달러에서 2033년 144.8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며, 2025~2033년 연평균 성장률(CAGR) 10.1%로 추정된다. 이 중 동사와 직접 관련성이 높은 Enterprise DRM(EDRM) 중심으로 살펴보면, Verified Market Reports에서는 글로벌 EDRM 시장 규모를 2024년 32억 달러, 2033년 45억 달러로 추산하고 2026~2033년 CAGR 15.5%로 전망하고 있다. 즉 엔터프라이즈 문서 DRM 세그먼트만 놓고 보면 연 14~16%대 고성장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는 DRM만 별도 집계된 통계는 없지만, 과기정통부와 KISIA의 「2024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보안 전체 매출이 2022년 5조 6,152억 원에서 2023년 6조 1,455억 원으로 9.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중 콘텐츠·데이터 보안 솔루션 영역이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어 국내 DRM/문서보안 시장 역시 한 자릿수 중후반 이상의 안정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4. 글로벌 DRM/문서보안 시장 전망 (2025-203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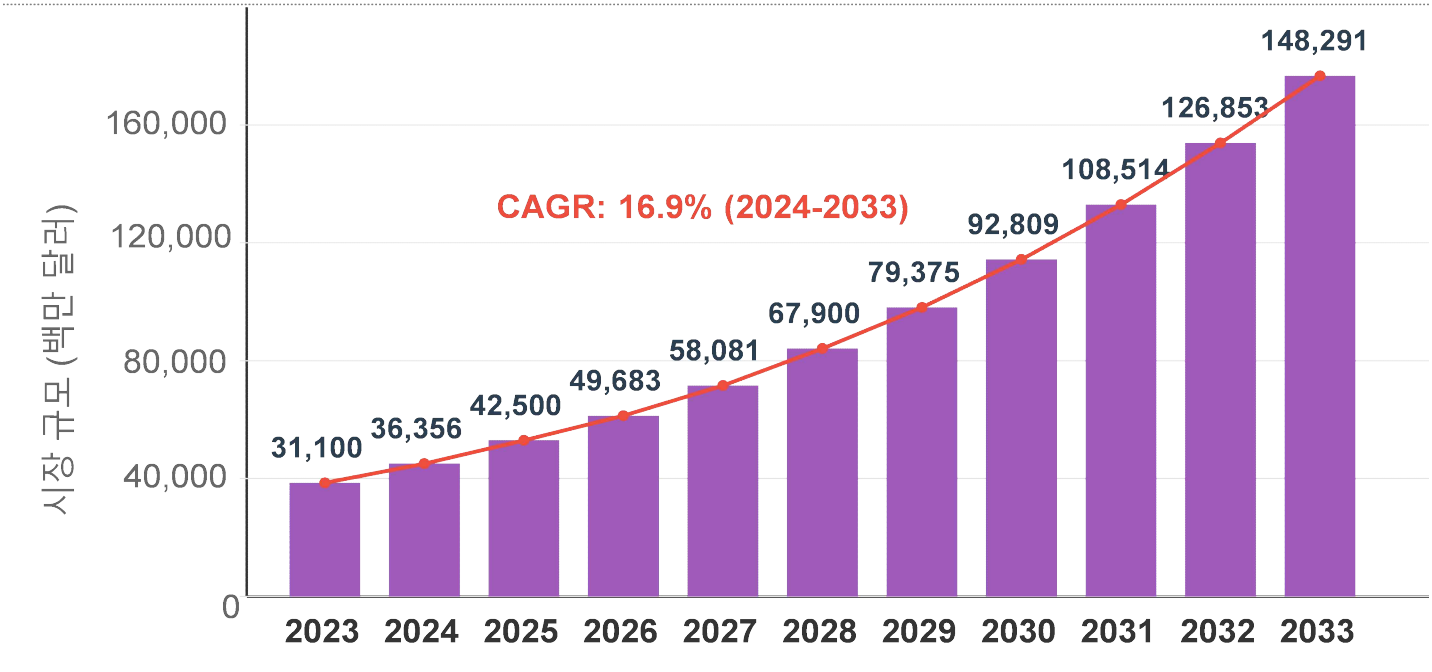
출처: Grand View Research,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글로벌 보안 세그먼트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제로트러스트 보안 시장

제로트러스트 보안 시장은 글로벌 보안 세그먼트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영역이다. 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제로트러스트 보안 시장은 2023년 311억 달러에서 2028년 679억 달

러로 성장할 전망이며, 연평균 성장률(CAGR)은 16.9%로 제시하고 있다. 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인 Remote Browser Isolation(RBI) 시장에 대해서 ResearchAndMarkets는 2025년 10.4억 달러, 2029년 32.5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고 2025~2029년 CAGR 32.8%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콘텐츠 무해화인 CDR(Content Disarm & Reconstruction) 시장은 Mordor Intelligence의 조사 기준으로 2025년 약 3.94억 달러에서 2030년 8.76억 달러까지 성장하며 2025~2030년 CAGR 17.3%가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아직 제로트러스트/RBI/CDR이 별도 시장으로 통계화되지는 않았지만, 과기정통부의 2025년 정보보호산업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정보보안(사이버보안) 매출은 전년 대비 15.9% 증가한 약 7조 1,244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정부가 국가망 제로트러스트 프레임워크(N2SF)를 발표하며 공공기관 망분리 환경에 단계적으로 제로트러스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내에서도 제로트러스트 · RBI · CDR 관련 시장이 향후 5년간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림 5. 글로벌 제로트러스트 보안 시장 (2023-203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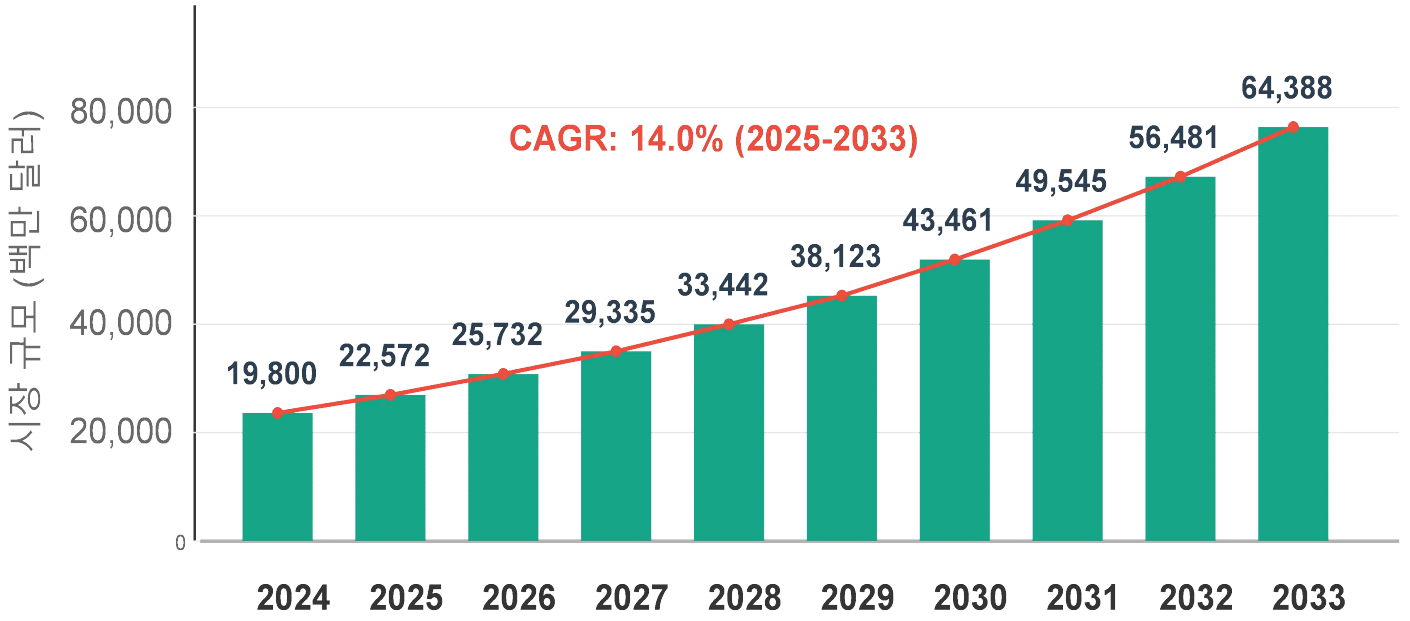


출처: MarketsandMarkets,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고성장 구간에 본격 진입한 클라우드서비스, SW 공급망, 인공지능 보안 시장

동사가 장기적으로 목표하는 클라우드 보안/서비스형 보안(SECaaS), SW 공급망 보안, AI 보안 분야도 모두 고성장 구간에 속한다. 먼저 Security as a Service(SECaaS) 시장에 대해 Global Industry Analysts는 2024년 글로벌 시장 규모를 198억 달러, 2030년 435억 달러로 추산하며 2024년에서 2030년까지 CAGR 14%로 전망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의 경우, Verified Market Reports에 따르면 글로벌 Software Supply Chain Security 시장은 2024년 12억 달러에서 2033년 45억 달러로 확대되며 CAGR 16.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기반 보안 시장 역시 Market.us 분석 기준 2023년 220억 달러에서 2033년 1,630억 달러까지 성장하고, 연평균 성장률 22.3%가 전망되는 초고성장 영역이다. 이처럼 SECaaS · SW 공급망 보안 · AI 보안 모두 연 14~22% 수준의 높은 CAGR이 예상되는 시장으로, 동사가 보유한 DRM/CDR/RBI 기술과 결합하여 클라우드형 보안 서비스, 공급망 검증 서비스(XSCAN), AI 기반 문서보안/위협 탐지 서비스 등으로 확장할 경우 중장기 성장스토리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림 6. 글로벌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시장(SECaaS) (2024-2033년)



출처: Global Industry Analysts,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주요기관별 시장전망

국내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시장은 2024년 기준 전년대비 15.9% 성장했으며, 이는 AI와 제로트러스트 패러다임이 신규 기술 개발을 촉진한 결과입니다. 특히 EDR과 인프라 보안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 KISA(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글로벌 제로트러스트 시장은 2028년까지 679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6.9% 성장할 것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배포모델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전망입니다.

– MarketandMarkets

글로벌 DRM 시장은 2025년 64.9억 달러, 2033년 101.9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며, 예측기간 동안 연평균 11.94%의 견조한 성장이 기대됩니다.

– Global Growth Insights

글로벌 Software Supply Chain Security 시장은 2024년 12억 달러에서 2033년 45억 달러로 확대되며 CAGR 16.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Verified Market Reports

■ 경쟁업체 현황

동사가 활동하는 분야 보안업체들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문서보안/DRM 분야의 해외 경쟁사로는 마이크로소프트(Azure Information Protection)와 IBM(Guardium 등 DLP 제품군)처럼 대형 IT기업들이 플랫폼에 내장된 DRM 기능을 제공하거나, 이외에도 NextLabs(미국) 이 있다. 콘텐츠 무해화(CDR) 분야에서는 이스라엘의 Votiro, 영국의 Glasswall 등이 국제시장에서 알려져 있으며, 원격 브라우저 격리(RBI) 분야는 미국의 Menlo Security, Broadcom(Symantec Isolation)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제로트러스트 네트워크 접근(ZTNA) 솔루션으로는 Palo Alto Networks, Zscaler, Cisco, Akamai 등 글로벌 네트워크 보안 리더들이 포괄적인 제품군을 출시하여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 글로벌 기업들은 자본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시장을 확장 중이지만, 동사는 국내 시장 특화와 문서보안 전문성으로 차별화하며 공존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세부 요구 사항의 커스터마이징 및 표준화 로드맵을 보여 국내외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또한 기술 제휴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사 솔루션과 상호보완적인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국내 DRM 시장은 동사를 포함한 파수, 마크애니 3사의 과점 체제가 장기간 고착화되어 있으며, 이들은 공공, 금융, 대기업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제로트러스트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동사 외에도 안랩, 파이오링크 등 기존 보안 업체들이 자사 솔루션을 기반으로 시장에 진입하며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다음은 국내 DRM 시장의 주요 경쟁업체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문서보안/DRM 시장에서 동사와 국내 주요 경쟁업체 비교

업체명	특징 및 주요 사업 및 제품현황	비고
파수	• 엔터프라이즈 DRM, 데이터 보안, 문서 협업 플랫폼 • 국내 DRM 시장 선두 기업으로 대기업 대상 데이터보안 강점, 소스코드 보안, 문서 협업 시스템 등으로 사업 다각화	- 코스닥 상장사 - Fasoo Enterprise DRM - 문서가상화, 시큐어코딩
마크애니	• DRM 및 워터마킹, 디지털 저작권 보호, 위변조 검증 솔루션 • 미디어 콘텐츠 DRM에 강점(영상/음원 보호)으로 출발하여 문서DRM까지 확장,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 전자문서지갑등 특화 기술 보유	- Document SAFER(DRM) - Screen TRACER - AegisSAFER - 워터마킹/위변조방지 기술 강점

출처: 각 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이 밖에 부분적으로 경쟁하는 업체로 이트러스트(이글루시큐리티)나 수산아이앤티(DLP 솔루션), 지란지교시큐리티(문서중앙화) 등이 있으나, 규모나 기술 면에서 비교적 제한적이다. 동사는 파수, 마크애니와의 경쟁 구도에서 원천기술과 제품 포트폴리오의 폭을 내세워 차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파수가 DRM 이외 시큐어코딩 등으로 외연을 넓힌 반면, 동사는 문서보안 오케스트레이션과 제로트러스트 접목으로 경쟁사 대비 진화된 접근을 보이고 있다. 시장점유율 측면에서는 동사, 파수, 마크애니가 국내 DRM 시장을 거의 분할하고 있으며, 동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특화 및 밀착영업으로 금융권 · 공공기관 레퍼런스를 다수 확보하여 일정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 외국계 업체 영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주요 경쟁사와의 혁신 속도 및 서비스 품질 경쟁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III. 기술분석

OS 커널 기반 Secure OS 개발과 전자문서 처리 기술에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로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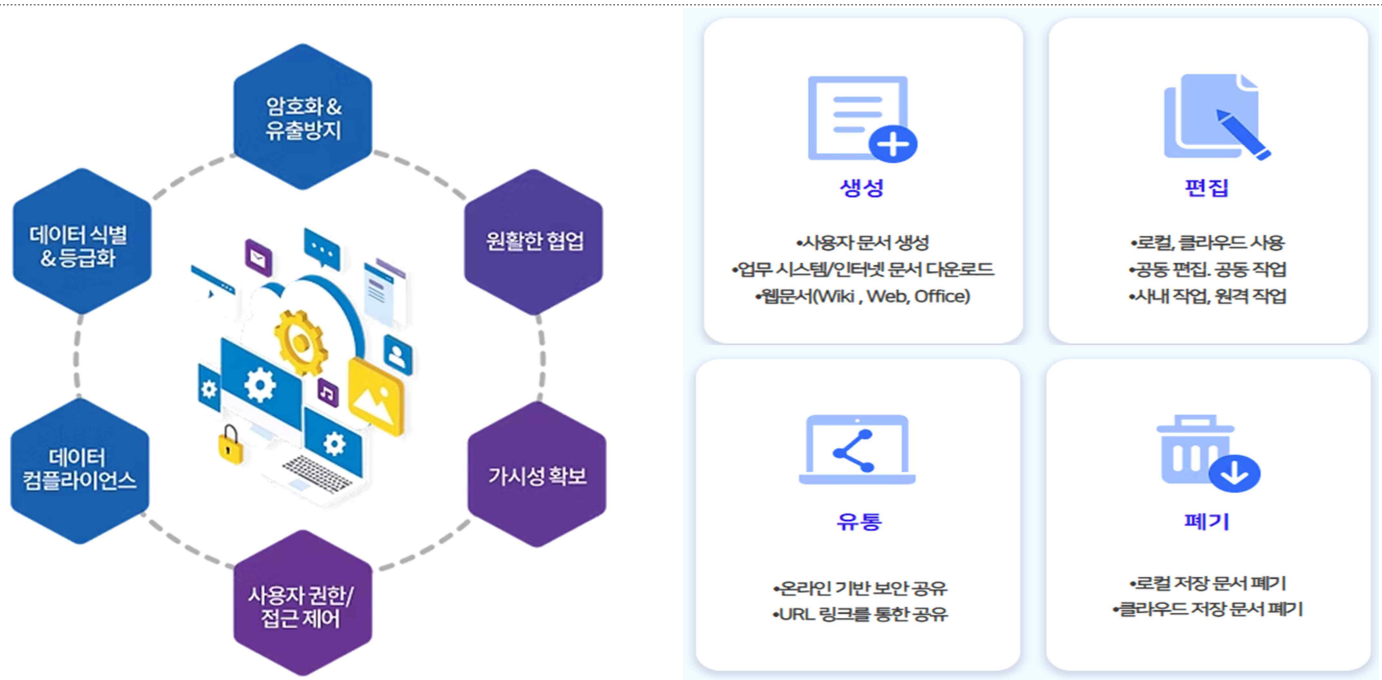
동사는 Windows 및 Linux 커널 레벨에서 보안 모듈을 개발하는 SecureOS 원천기술로 PC보안, 키보드보안, DRM 등 고난도 솔루션을 자체 구현해왔으며 암호화/인증/무해화 등 파일 단위 보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등, 20여 년간 축적한 노하우로 커널,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계층을 아우르는 통합 보안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다.

■ 동사의 전통주력 분야인 문서보안 DRM 솔루션 기술은 지속 진화 중

동사의 전통 주력 분야로, 문서보안을 비롯한 엔드포인트 DRM 솔루션을 통해 기업 내부문서를 생성 시 자동 암호화하고 권한 제어로 유출을 방지한다. 이 솔루션들은 운영체제 커널에 파일시스템 필터 등을 설치하여 사용자 모르게 실시간 암호화/복호화를 수행한다. 예컨대 직원이 워드나 CAD 파일을 저장하면 즉시 DRM 모듈이 개입해 해당 파일을 지정된 포맷으로 암호화하고, 열람 시에는 인증된 프로그램에서만 권한체크를 통한 열람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권한관리 기능을 통해 열람 · 편집 · 스크린샷 · 인쇄 등의 세부 권한을 부여/통제한다. 내부적으로는 모든 문서행위(열람, 수정, 반출 등)를 로그로 기록하여 추적성을 확보하며, 관리자는 중앙관리 콘솔로 정책을 설정하고 로그를 모니터링한다.

동사의 DRM은 파일 포맷 독립적 암호화 기술을 강점으로 다양한 문서와 이미지, 도면 파일까지 보호 가능하다. 또한 PC에서 보호된 문서를 외부 클라우드(예: OneDrive)에 업로드 시 자동 변환하여 MS의 AIP 암호화로 연계하는 등 하이브리드 환경 통합보안을 실현한다. 국내외 다수의 도입 사례를 통해 안정성과 성능이 입증되었으며, 기업 정보보안의 기본 솔루션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이 DRM 문서 중심 보안 기술은 데이터 자체의 라이프사이클(생성, 유통, 활용, 폐기) 전반을 통제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되며, 동사의 전통적인 캐시카우 사업 분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 7. 데이터 라이프사이클 전반을 통제하는 동사의 DRM 문서보안 기술



출처: 동사 홈페이지

■ 신규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은 제로트러스트 보안 기술

망분리 환경이나 원격근무 환경에서의 보안을 위해 동사는 S-Work와 SHIELD Gate 솔루션을 제공한다. S-Work는 PC 가상화 기반으로 내부망/외부망 작업환경을 분리하는 솔루션으로 과거 국가정보원 인증을 받아 공공기관 망분리에 활용되었다. 여기에 더해 SHIELD@Home이라는 재택근무 전용 보안 단말기를 출시(2020년)하여 원격지에서 회사 내부망에 안전하게 접속하는 기능을 제공했다.

이는 신뢰할 수 없는 접속에 대한 보안, 즉 외부위협의 내부 유입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는 제로트러스트 보안 기술 아키텍쳐를 기반으로 구성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SHIELDEX Remote Browser(RBI)는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 기술인 '격리'를 구현한다. 사용자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실제 웹 콘텐츠(HTML, Script)는 사용자 PC가 아닌 별도의 격리된 서버 컨테이너에서 실행된다. 사용자 PC에는 렌더링된 화면 결과(Visual Stream)만 안전하게 전송된다. 이 방식은 웹사이트에 숨겨진 악성코드나 제로데이 취약점이 사용자 PC로 유입될 '공격 표면(Attack Surface)' 자체를 원천 제거한다. SHIELDEX(콘텐츠 무해화)는 '격리'와 함께 제로 트러스트의 또 다른 축이며 이메일 첨부파일이나 외부 파일에서 잠재적 위협 요소(매크로, 스크립트 등)를 탐지/제거하고 안전한 비주얼 콘텐츠만 추출하여 문서를 재조합한다. 이는 알려지지 않은 신종 랜섬웨어 방어에 효과적이다.

그림 8. 동사의 제로트러스트 보안 전략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SHIELD Gate는 동사의 차세대 보안 원격접속(ZTNA - 제로트러스트 보안의 '접근') 솔루션으로, VPN 없이도 클라우드 기반 IAP(Identity Aware Proxy) 기술로 사용자를 인증하고 사내 웹 애플리케이션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제품이다. 이 솔루션은 에이전트리스 방식으로 별도 설치 없이 브라우저만으로 안전한 업무망 접속을 가능케 하며, 사용자/단말 신원 정보에 따라 접근정책을 동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내장된 RBI 기능과 파일무해화 모듈로, 사용자가 원격으로 내부 시스템 접속 시 발생하는 웹 브라우징 위험과 파일전송 위험까지 동시에 차단한다. 이를 통해 재택이나 출장이 많은 현대 업무환경에서 보안과 사용편의의 균형을 잡아준다.

SW 공급망 보안 측면에서는, 동사가 2023년 출시한 XSCAN 서비스가 있으며 이 서비스는 클라우드 상에서 소프트웨어 납품 과정의 파일을 자동으로 검증하는 SaaS 플랫폼으로, 과거 수동으로 진행되던 납품 SW의 악성코드 검사, 인증서 검증, 공급자-사용자 간 확인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외부 SW를 받을 때 생길 수 있는 공급망 공격을 예방하도록 돕는다. XSCAN은 화이트해커 그룹과의 협업으로 개발된 만큼, 코드 취약점 점검, 위변조 탐지 등 고급 기능도 포함되어 차별화된 공급망 보안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 조직 외부 유입 파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솔루션 기술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파일과 이메일은 조직 보안의 취약점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동사는 여기에 Secure E-mail Gateway를 제공한다. SHIELDEX CDR(File/Mail)은 앞서 설명한 대로 들어오는 파일의 활동 내용(active content)을 제거하여 안전한 내용만 재구성하는 기술로, 밀리초 단위의 빠른 변환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으면서 보안을 보장한다.

그림 9. Secure E-mail Gateway의 외부 유입파일 보안관리 체계

출처: 동사 기술 블로그

특히 파일 포맷별로 알려진 공격패턴을 제거하는 시그니처 방식과 무해한 요소만 남기는 무조건 무해화 방식을 결합하여 검사 우회 공격에도 대응한다. Secure E-mail 쪽으로는 SHIELDEX Email Security 제품이 있어, 이메일 본문에 포함된 URL을 사용하여 웹페이지를 격리된 브라우저로 열어보는 기능을 제공한다. 문제가 있는 첨부파일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CDR 엔진으로 처리하여 수신자에게 안전파일을 전달한다. 이 솔루션은 기존 이메일 보안(스팸 차단, APT 공격 메일 차단)에 파일무해화와 RBI를 결합한 진화된 형태로, 최근 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

한편, Secure Mark와 같은 화면 워터마크 솔루션도 콘텐츠 보안 영역에 속하는데, PC 화면 자체에 사용자 정보가 담긴 워터마크를 반투명하게 겹쳐 표시함으로써 화면 캡처나 사진 촬영을 통한 유출을 억제하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문서 DRM과 연계되어 DRM 보호문서 열람 시에만 워터마크가 뜨도록 하거나, 외부 반출용 파일에도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등 Secure Mark를 통해 혹시 화면이 유출되어도 책임 추적이 가능하며, 관리자 권한 없이는 워터마크 프로세스를 종료할 수 없어 사용자 임의 해제도 불가하다. 이처럼 동사는 전자문서, 웹, 이메일, 화면 등 정보가 표시되는 모든 채널을 보호하는 기술 스택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종합하여 고객에게 다계층의 보안 솔루션을 제공한다.

표 4. 동사 주요 사업장 현황

사업장 구분	위치	주요 기능
본사(본점)	경기 과천시 갈현동 DX타워	경영관리, R&D총괄, 영업본부, 사업본부
SOFTCAMP Japan	일본 동경	일본 현지 영업 및 기술지원 센터
㈜레드펜소프트	경기 과천시 갈현동 DX타워	합작법인, XSCAN 서비스 운영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5.09.),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동사의 본사는 2024년 과천 신사옥으로 확장 이전하였고, 일본 지사는 2020년 SOFTCAMP Japan으로 합병 통합되어 도쿄 중심지에 위치하며, 일본어 기술지원과 마케팅 허브 역할을 한다. 연구개발 조직은 본사와 기술 연구소, Cloud 기술본부, 각 제품별 개발팀 등이 운영되고 있어 전체 임직원의 상당수가 R&D 인력이다. 동사는 별도 생산공장은 없으며, 모든 개발은 자체 인력으로 이루어지는 LAB 형태 조직이다. 또한 파트너 지원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 파트너사 협력 거점을 두고 기술 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현지 밀착 서비스와 글로벌 역량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 연구개발 활동

동사는 매출 대비 높은 R&D 투자를 지속하며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는 매출의 약 17%~21% 수준으로 투입되었고, 2025년 3분기까지 약 26억 원의 연구비용을 지출했다. 연구개발 조직은 SECaaS연구소, Cloud기술본부, 그리고 각 사업본부 내 제품별 개발팀으로 구성되어 고객 니즈에 맞춘 기민한 개발을 수행한다.

그림 10. 커널 기반의 보안 기술 바탕으로 최적의 보안 솔루션 제공을 위한 연구활동

출처: 동사 회사소개서

동사는 운영체제, 암호학, 클라우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으며, 전체 임직원 중 연구인력 비중이 상당히 높다. 주요 연구과제로는 클라우드 문서보안 플랫폼 개발, 제로트러스트 연계 솔루션 고도화, AI 기술을 접목한 보안 위협 탐지 등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개방형 OS(구름OS)에 보안 기능과 암호관리 기술을 공동 연구개발 중인 점은 눈에 띈다. 이를 통해 향후 공공 부문 클라우드 OS 보안 솔루션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1년 화이트해커 업체와 합작 설립한 레드펜소프트를 통해 SW 공급망 보안 서비스(XSCAN) 개발을 추진, 2023년 상용화함으로써 새로운 R&D 성과를 거두었다. 동사는 정부 지원과제를 적극 활용하여 혁신기술 확보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실제로 정보보호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에 참여해 국책과제 수행 실적이 있으며, 2023년에도 KISIA를 통해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실증사업에 선정되는 등의 지원을 받았다. 연구성과물은 곧바로 제품화하거나 특허로 출원하여 권리를 확보한다. 현재까지 국내 특허 수십 건, 미국 등 해외특허 다수를 등록했으며, DRM 분야 원천특허와 CDR 관련 특허도 보유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R&D 행보 덕분에 동사는 제품 업그레이드 등 미래 성장 동력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향후에도 매출 성장과 기술 선도를 목표로 연구개발 투자를 유지할 계획이며,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접목한 지능형 보안 기술 개발에도 뛰어들어 경쟁우위를 공고히 할 전망이다.

■ 기술 진입장벽

동사의 사업 분야는 높은 기술 전문성을 요구하여 이를 위한 진입장벽을 구축하였다. 우선 지식재산권(특허) 측면에서 회사는 국내 6건 이상의 핵심 특허를 보유하며, 미국, 일본 등의 타 경쟁사가 동일기능 제품을 개발할 때 법적 제약이 있다. 예를 들어 '문서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관련 특허를 2025년 등록하여 DRM과 AIP 융합기술을 선점하였고, '랜섬웨어 대응 보안방법', '파일 추상화 저장시스템', '이메일 링크 악성검사' 등 다양한 국내 특허도 확보했다. 또한 2000년대부터 미국, 일본, 중국 등에 커널 키보드 보안, 가상디스크 전송 보안 등 원천기술 특허를 선제적으로 취득하여 해외 시장에서도 기술 장벽을 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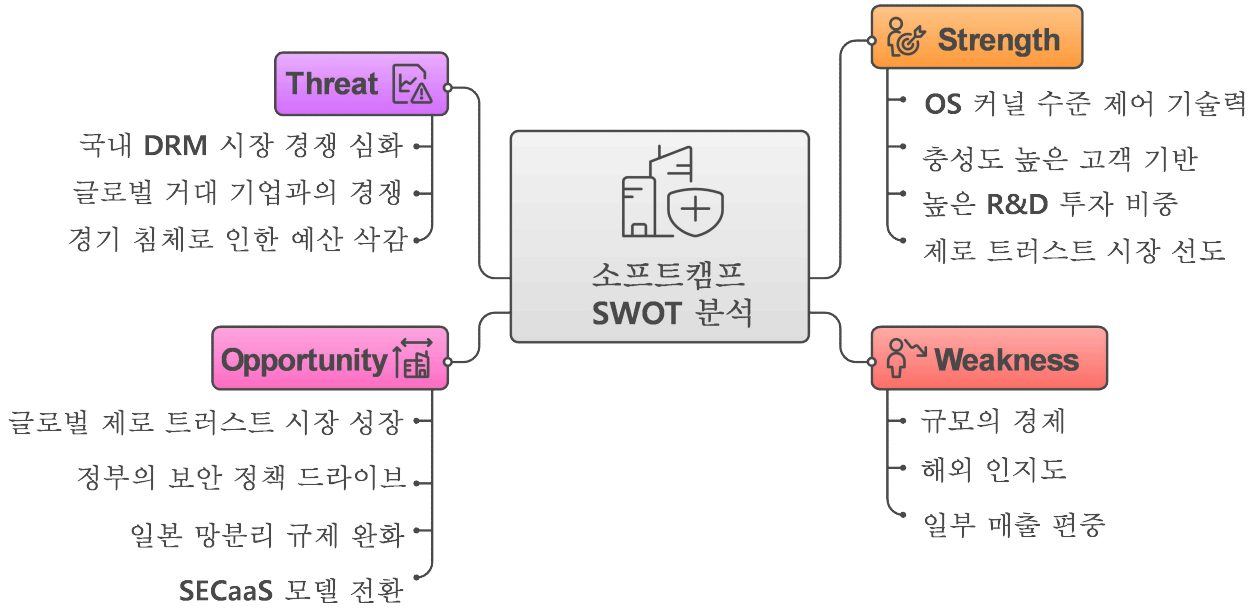
표 5. 주요 인증 현황

인증명	내용 및 의미
국내 보안인증	GS 인증 1등급 – Document Security V6.0 GS 인증 1등급 – SHIELDrive Enterprise V365 GS 인증 1등급 – SHIELDGate V1.0 등 외 다수 : 국가 SW 품질 인증, 기능성과 사용성 검증 통해 공공사업 필수
암호모듈 인증	KCMVP 인증 – SCCryptoK V1.1, KCMVP 인증 – SCCrypto V1.0 : 국가용 암호모듈 검증필 인증, 정부망 적용 위한 필수 조건
국제 표준 준수	ISO 27001 – 정보보안경영시스템, ISO 14001 – 환경경영시스템 ISO 9001 – 품질경영시스템 : 내부 보안관리 프로세스 및 품질 보증체계 국제표준 준수
기술 품질 확인	보안기능확인서 – SHIELDGate V2.0 신속확인제 – SHIELDEX Remote Browser V1.0 클라우드보안인증제 – RBI2 : 국가 보안적합성 임시확인, 혁신 제품 가점 등 혜택(국가 정보원 인증)
국제 보안인증	CC인증 – Document Security V6.0 : IT 보안인증 사무국 (2022)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5.09.),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이러한 인증들은 제품을 도입하려는 고객(특히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기본 요건이므로, 인증 보유 현황이 곧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동사는 경쟁사 대비 다양한 인증을 선점하여 신뢰성을 증명했으므로, 신규 업체가 같은 수준의 신뢰를 얻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SWOT 분석



1. 강점 (Strengths)

○ 운영체제(OS) 커널 제어(Secure OS) 기반의 원천 기술력
○ 대기업/금융권 중심의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 및 안정적 유지보수 매출
○ 매출액 대비 높은 R&D 투자 비중
○ 국내 제로트러스트 시장 선도(KOZETA 의장사)

2. 약점 (Weaknesses)

○ 글로벌 대형사 대비 인력/자본 규모 제한
○ 일본 외 지역에서는 해외 인지도 등 브랜드 파워 미흡
○ 기존 DRM 사업 의존도가 높아 신사업 매출 창출이 주요 과제

3. 기회 (Opportunities)

○ 시장 트렌드가 당사 신제품 방향과 부합
○ 공공 제로트러스트 도입, N2SF 등 정책 추진으로 신규 수요 증가 가능성
○ 클라우드 AI 기술 확산으로 문서보안의 역할 증대(데이터보안) 및 고객 간 클라우드 협업 증가

4. 위협 (Threats)

○ 국내 DRM 시장의 성숙 및 경쟁 심화 (vs. 파수, 마크애니)
○ 글로벌 제로 트러스트 시장의 거대기업(Zscaler, Palo Alto 등)과의 기술 및 자본 경쟁
○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 및 공공 부문의 IT 보안 예산 삭감 가능성

IV. 재무분석

2025년 3분기 매출 상승 및 수익성 개선

2024년 동사는 주요 사업인 DRM 제품군 매출 감소로 전체 매출액이 전년 대비 8.6% 하락하였으나, 원가 절감으로 영업손실 규모가 8억 원 축소되고, 당기순이익이 60억 원 증가하였다. 2025년 3분기에도 수익성 개선의 흐름을 이어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확대되었다.

■ 주요 고객 수주 확대로 2025년 3분기 매출액 증가

동사는 문서 DRM, 영역 DRM, 클라우드 네이티브 DRM 등의 제품으로 구성되는 DRM제품 부문과 원격 브라우저 격리, 보안 원격 접속, 클라우드 환경의 통합 계정관리 등의 제품으로 구성되는 기타시스템보안/보안관리 부문 및 유지보수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정보보안솔루션 전문기업이다.

2024년 결산 기준 전체 매출의 49.4%는 DRM 제품군, 6.3%는 기타시스템보안/보안관리 부문, 44.3%는 유지보수 부문이 차지하며, 내수 매출이 약 99%를 구성하고 있다. 동사의 최근 매출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190억 원의 매출을 시현한 이후, 2023년에는 기타시스템보안/보안관리 부분 매출이 급감하며 전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8% 감소하였다. 2024년 동사 매출은 주력 사업 부문인 DRM 제품군의 매출 감소로 전년 대비 8.6% 하락하여 169억 원을 나타내었다.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은 주요 고객의 수주가 대폭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44.1% 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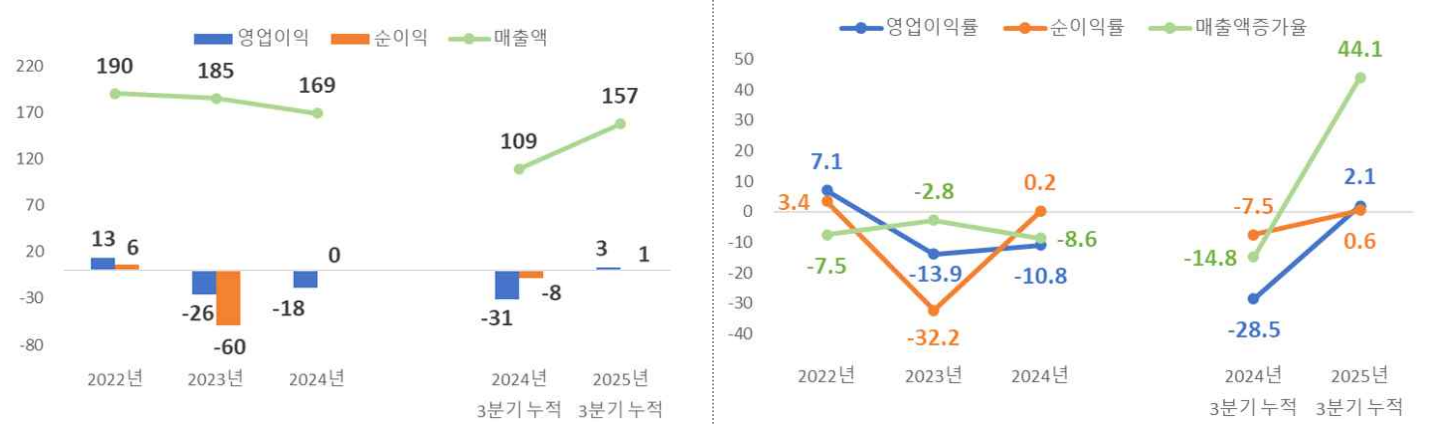
■ 2025년 3분기 매출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

2023년, 동사 매출이 전년 대비 하락함과 더불어 서버, 외주용역비 등 원가 상승과 판관비 확대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9억 원 감소하며 26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관계사평가에 따른 지분법손실을 인식하며 당기순이익 또한 66억 원 감소하였고, 순이익률은 -32.2%로 하락하였다.

2024년에는 매출이 2023년 대비 16억 원 하락하였음에도 외주용역비가 대폭 감소하며 영업손실 규모가 8억 원 축소되었다. 배당금수익 등 금융수익 증가, 대손상각비 감소로 인한 기타비용 축소로 당기순이익은 60억 원 증가하였다. 2025년 3분기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원가 및 판관비 부담이 완화되며 영업이익이 34억 원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 또한 9억 원 증가하며 흑자전환하였고,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그림 11. 동사 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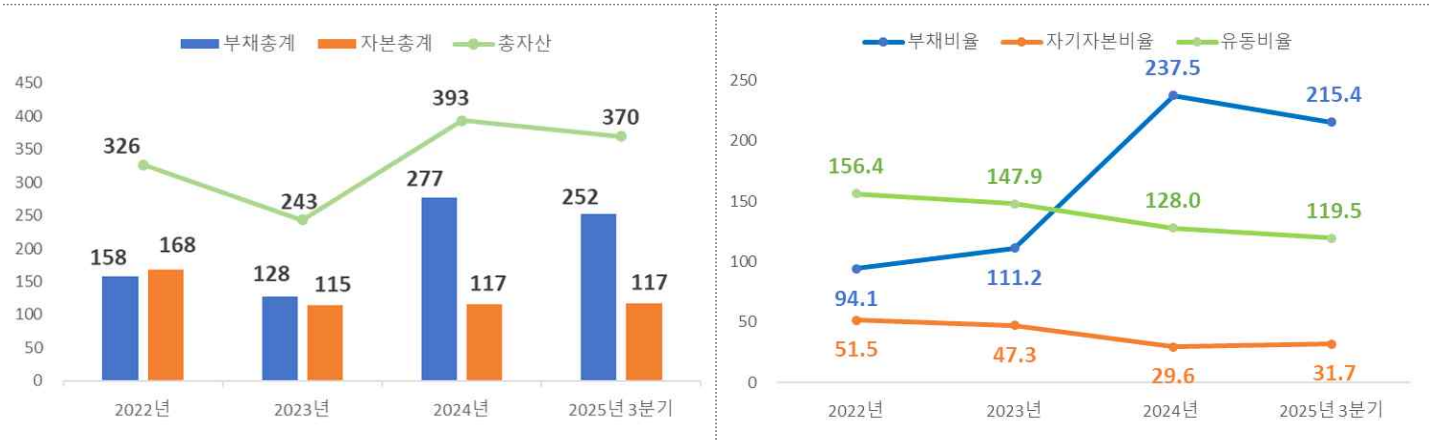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분기보고서(2025.09.),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2024년 부채비율 급증 이후 재무건전성 개선 추세

2023년 동사는 선급금 등 유동자산과 이연법인세자산 등 비유동자산이 모두 감소하며 총자산이 전년 대비 83억 원 축소되었다. 부채총계는 유동성전환사채, 유동성파생상품부채의 축소로 전년 대비 30억 원, 자본총계는 이익결손금 누적으로 53억 원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은 4.2%p 하락, 부채비율은 17.1%p 상승하였고, 유동자산 감소의 영향으로 유동비율은 8.5%p 하락하였다.

2024년에는 장기차입금이 약 155억 원 확대되며 부채총계가 149억 원 증가하였고, 부채비율은 126.3%p 상승, 자기자본비율은 17.7%p 하락하였다. 유형자산, 토지부동산 취득으로 총자산은 150억 원 증가하고, 전년에 이어 유동자산의 감소율이 유동부채의 감소율을 상회하며 유동비율은 19.9%p 하락하였다. 2025년 3분기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 등 유동자산이 감소하며 총자산이 23억 원, 유동계약부채, 차입금 감소로 부채총계는 25억 원 축소되었다. 유동비율은 8.5%p, 부채비율은 22.1%p 하락하고, 자기자본비율은 2.1%p 상승하였다. 동사는 2024년 대규모 차입으로 부채비율이 상승하였으나 2025년 3분기에 하락하는 등 재무건전성 개선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림 12. 동사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분기보고서(2025.09.),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표 6. 동사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3분기 누적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액	190	185	169	109	157
매출액증가율(%)	-7.5	-2.8	-8.6	-14.8	44.1
영업이익	13	-26	-18	-31	3
영업이익률(%)	7.1	-13.9	-10.8	-28.5	2.1
순이익	6	-60	0	-8	1
순이익률(%)	3.4	-32.2	0.2	-7.5	0.6
부채총계	158	128	277	286	252
자본총계	168	115	117	108	117
총자산	326	243	393	394	370
유동비율(%)	156.4	147.9	128.0	91.4	119.5
부채비율(%)	94.1	111.2	237.5	264.7	215.4
자기자본비율(%)	51.5	47.3	29.6	27.4	31.7
영업현금흐름	7	1	36	-16	-20
투자현금흐름	-8	24	-149	-144	-6
재무현금흐름	3	-48	142	165	-8
기말 현금	42	18	47	23	14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분기보고서(2025.09.),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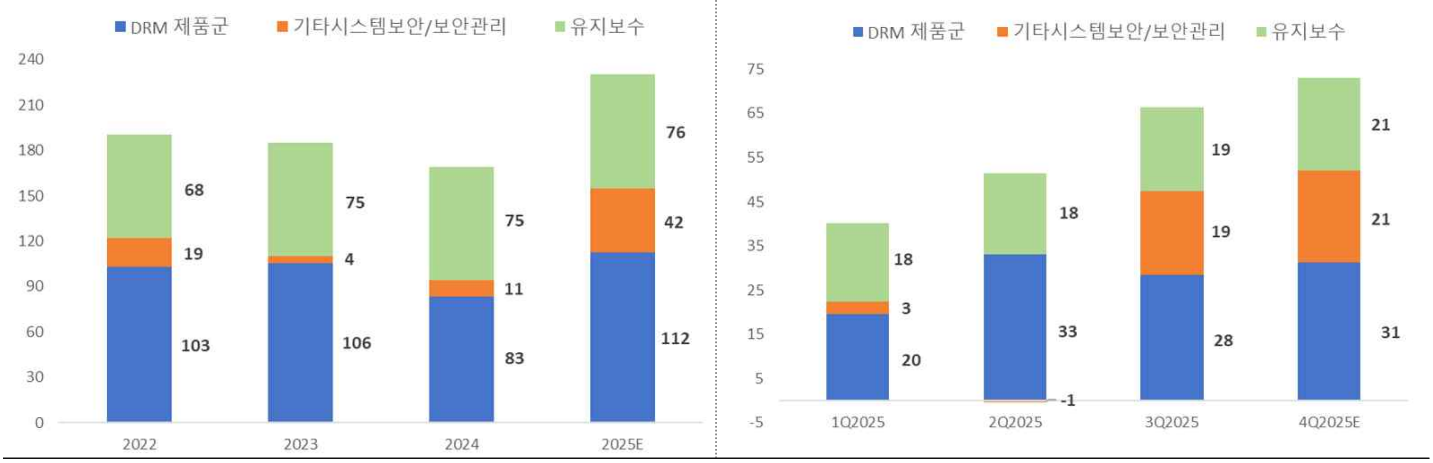
■ 동사 실적 전망

동사는 정보보안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전자문서 확산 · 산업기술 유출 증가 ·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 확대로 보안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시장에서 안정적 성장 기반을 갖추었다. 특히 문서 중심 보안 분야에서 국내 대기업 · 금융지주 중심의 탄탄한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운영체제 커널 수준의 SecureOS 기술, 전자문서 처리기술, 권한관리 기술 등 핵심 원천기술을 자체 보유함으로써 경쟁사 대비 높은 진입장벽을 구축해 왔다. 이러한 기술력은 국내 전용 문서 규격, 다양한 사내 시스템 연동 등 외산이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차별적 우위를 제공하며, 기존 고객 중심의 업그레이드 · 추가 구축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SHIELDGate · SHIELDEX Remote Browser 등 제로트러스트 기반 솔루션은 기업들의 재택 · 원격근무 확산에 대응하며 시장 채택률을 빠르게 높이고 있고, Security 365 클라우드 서비스는 설치 없이 즉시 사용 가능한 SaaS 모델로 고객 저변 확대가 기대된다. 일본 보안시장 내 CDR 공급 확대, 공급망 공격 대응 솔루션 출시 또한 추가적인 해외 · 산업 보안 수요 확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동사는 기존 문서보안 시장의 견조한 고객 충성도와 더불어 클라우드 · 제로트러스트 · 스마트팩토리 보안 등 신성장 영역을 동시에 확대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실적의 안정성과 성장성이 모두 강화되는 구조적 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3. 동사 사업부문별 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반기보고서(2025.06.), 분기보고서(2025.09.),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표 7. 동사의 사업부문별 연간 실적 및 분기별 전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2	2023	2024	2025E	1Q2025	2Q2025	3Q2025	4Q2025E
매출액	190	185	169	230	40	51	66	73
DRM 제품군	103	106	83	112	20	33	28	31
기타시스템보안/보안관리	19	4	11	42	3	-1	19	21
유지보수	68	75	75	76	18	18	19	21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반기보고서(2025.06.), 분기보고서(2025.09.),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제로트러스트 보안 확산,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실질적 기업가치의 긍정적 변동 모멘텀 기대

동사는 주력 사업의 꾸준한 성장과 더불어 신시장 개척을 통해 과거 적자기업에서 벗어나 이제 성장성 + 수익성 + 신사업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향후 2~3년은 이러한 전략적 전환의 결과가 가시화되는 시기이며, 성공 시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전반적으로 시장 환경의 우호적인 작용과 자체 경쟁력 강화로 안정적 성장 궤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외 진출 성과의 가시화 기대

동사는 일본 자회사를 통한 직접 영업으로 이미 다수의 일본 금융권·제조업 고객을 확보했으며, 일본 정부의 정보보안 규제 강화와 함께 현지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2024년 하반기 일본 대기업 등과 클라우드 DRM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일본 IT위크 박람회파트너 네트워크도 넓어졌다. 일본 사업은 매출 성장뿐 아니라 엔지니어 인력도 현지에서 확보 후 2~3년 내 일본 매출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려 전체 매출의 10~15%를 일본에서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 및 중동 시장에도 파트너를 통해 간접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베트남, 싱가포르 등지의 금융권 대상으로 문서보안 PoC(개념검증)를 진행하며 제품 현지화를 타진 중이다. 중동 지역에서는 UAE의 정보보호 전시회에 참여하여 정부기관 수요를 파악했으며 특히 니치마켓 공략 전략으로 일본, 중동 등에서 동사의 제품 경쟁력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4년 말에는 글로벌 버전 제품 라인업을 정비(영문 UX 개선, 현지 법규 준수 등)했고, 수출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 파트너십 측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AWS 등의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 제품을 등재하거나, 현지 총판과 MOU 체결도 추진 중이다.

■ DRM 등 기존 강점 분야 외 신규 보안 요구 영역으로 본격적 진출 모색

국내 시장에서는 먼저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SaaS)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제품 라이선스 판매 위주였던 사업모델을 구독형 서비스로 전환·확대하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SecureDRM과 CDR 기능을 클라우드로 이용하도록 하는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중견·중소기업 보안 시장을 새로 개척하는 효과가 있어 저변 확대가 기대된다.

둘째로 AI 보안 솔루션 분야를 들 수 있다. 배환국 대표는 “AI 전환(AX)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Enabler가 되겠다”라고 강조했는데, 이에 따라 AI 모델 학습 데이터 보호(문서/이미지 DRM 처리), AI 생성문서 워터마크 삽입, AI 기반 보안위협 탐지 등의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고 DRM을 입히거나 조직 내 AI 사용을 통제하는 관리 솔루션은 블루오션으로 주목된다.

세 번째로, 산업제어/OT 보안 영역 진출 가능성도 점쳐진다.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강화로 공장 도면, 설계 파일 보호 수요가 높아지면 OT환경 파일 보안에 적용하는 제품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네 번째로 모바일 보안 분야에서, 과거 모바일 문서보안 제품을 내놓은 경험을 살려 MDM(Mobile Device Management), 스마트폰 파일 DRM 등으로 라인업을 확장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융합보안 컨설팅 사업 진출도 고려된다. 최근 고객들은 단품 솔루션보다 포괄적 보안 체계를 원하기 때문에, 동사는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문서중앙화,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신규 분야로의 진출 전략은 회사의 기술역량과 시너지되는 방향으로 선택되고 있으며, 구체화 단계마다 시장 테스트를 거쳐 추진될 것이다. 이러한 신사업들이 안착하면 동사는 단순 제품판매 기업에서 보안 서비스 기업으로 국내 위상을 한층 강화하게 될 전망이다.

최근 뉴스와 향후 전망

☑ 프롬프트: 동사의 최근 뉴스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알려주세요.

☑ 생성형 AI 답변:

최근 ㈜소프트캠프는 금융 · 공공 · 해외를 중심으로 제로트러스트 보안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11월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 '피스콘 2025'에서 웹 격리(RBI) 기반 보안 원격 접속 서비스 '실드게이트(SHIELD Gate)'와 자회사 레드펜소프트의 서버 런타임 SBOM 솔루션 'XSCAN Server Runtime'을 선보이며, 생성형 AI · SaaS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금융권 레퍼런스를 넓히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일본 최대 IT 전시회와 'SOFTCAMP Solution Day 2025'를 통해 일본 현지에서 실드게이트와 클라우드 계정관리 서비스 'SHIELD ID'를 공개하고, AWS 서밋 등 국내외 행사에 참여하면서 클라우드 · 제로트러스트 제품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7월에는 네트워크 보안 전문업체 앤앤에스피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국가망 보안체계(N2SF) 전환과 OT(운영기술) 보안 시장을 공동 공략하기로 하는 등 공공 · 산업제어 영역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 출처: Chat GPT

㈜소프트캠프는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직스테크놀로지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보안 솔루션 제공을 더욱 강화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소프트캠프는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클라우드 및 스마트워크 환경에서의 보안을 더욱 견고히 하고, 기술력과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정보보안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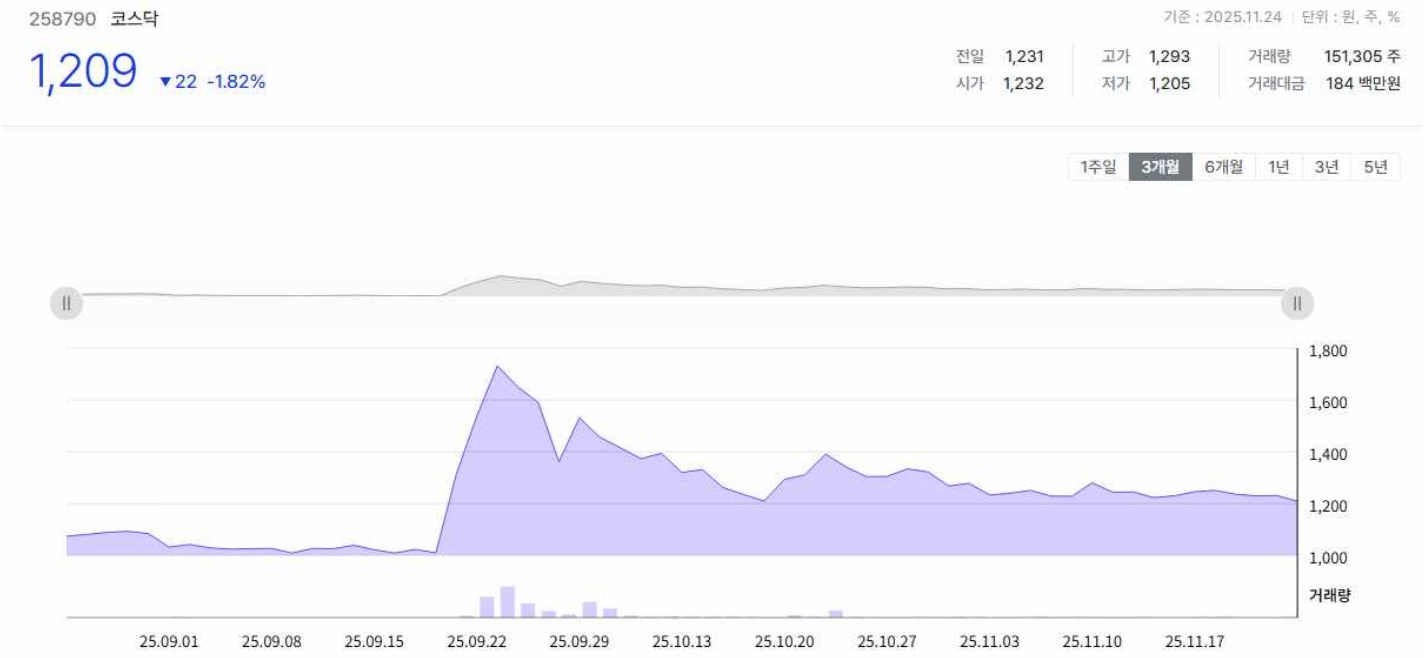
* 출처: 뤼튼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	-	-	-
	최근 6개월 내 발간보고서 없음		

소프트캠프(258790)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NICE BizLINE(2025.11.24)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소프트캠프(주)	O	X	X

2025년 9월 24일 투자경고 지정예고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음.